

농관원 면세유 사후관리 기관 지정

고성출장소, 부정 유통 단속 강화... 6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강원지원 고성출장소(소장 황광현)가 올해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 돼 농가별 면세유류 기본 배정량의 적정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고성출장소에 따르면 일부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하는 사례가 있으며,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면세유를 공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농업인, 석유판매업자, 농협 등에 대한 조사와 수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 유통사태가 발견되면 영구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공급이 확인되면 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면세유류 판매업자가 부정 유통 행위를 할 경우 감면세액의 40% 추징과 3년간 판매중지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농관원은 특히 면세유를 연간 1만 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가와 내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판매업 및 관리기관에 대해서도 수시 감독 등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 시킬 계획이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비료와 농약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6월 30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농관원 고성출장소 관계자는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6월30일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미등록으로 인한 면세유 공급 중단 피해를 받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친절서비스·좋은 식단 제공 노력”

음식업 고성군지부 2011년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고성군지부(지부장 김창길)은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고성군 문화의집 3층 대강당에서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와 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교육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 위생관념 고취와 식품 안전 확보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친절서비스와 좋은 식단을

제공해 식문화 발전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신규 영업자의 경우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는다.

이날 교육에서는 음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 오승환 지부장이 나와 식품접객 영업자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또 고성군보건소 예방의약팀 변원용 담당이 식중독 예방과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고성군보건소 위생팀 김인복 담당이 식품위생 해설 및 위생 시책에 대해 강의했다.

음식업 고성군지부 김창길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어족자원의 고갈과 금강산육로관광 중단,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등 지난해 겨울 한파와 더불어 구제역, 일본 대지진에 의한 원전사고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며 “이달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제 16회 바다의날이 고성에서 개최되는만큼, 이런 기회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다시 찾는 관광고성1번



지난 3일 고성지역 식품접객업소 기존 영업자들이 2011년도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지가 되도록 회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지부장은 또 “활기찬 고성, 행복한 고성, 잘사는 고성을 어렵

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우리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박승근 기자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현대증권(00345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우량주 칼럼을 작성하면서 현 시점의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은 소개된 상황으로 특별하게 언급할 만한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특정 업종과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되며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우량주는 메이저의 선택을 받아 상당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우량한 기업 중에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종목들을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지만

메이저의 선택이 없으면 그냥 저평가 종목일 뿐 우리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

저평가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는 분들은 수익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예측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 메이저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화학, 자동차 등 특정 업종과 종목에 편승한 상승세가 이어져 왔다. 간간히 순환매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시세가 이어지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업종의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부담스러운 위

치에 놓여 있는 상황인지를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심리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종목을 쉽게 매도하기 위한 선택이다. 그들이 현 주도 종목들만 지속 상승시킨다면 어쩔 수 없고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지수의 상승 역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에 현물은 매매할 것이 없다.

일단 우리는 시장의 심리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가정을 하고 종목에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거래소는 증권주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현시점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삼성증권이지만 증권주는 움직이면 함께 상승하고 업종 내 순환 흐름을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을 매매 종목으로 삼으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결국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이 함께 나타나며 상승세를 이끌 것이고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현시점부터 시장의 움직임은 증권주만 보아도 답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